



“제주 먹거리를 세계로”... 함께 힘 모은다

제주도-JDC-농업인단체, 어제 전략 수립 업무 협약
미래 농업 위한 사업 발굴... 지속가능성 확보 기대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제주 먹거리산업의 글로벌화를 향한 비전·실행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심이 쏠린다.

26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간의 ‘제주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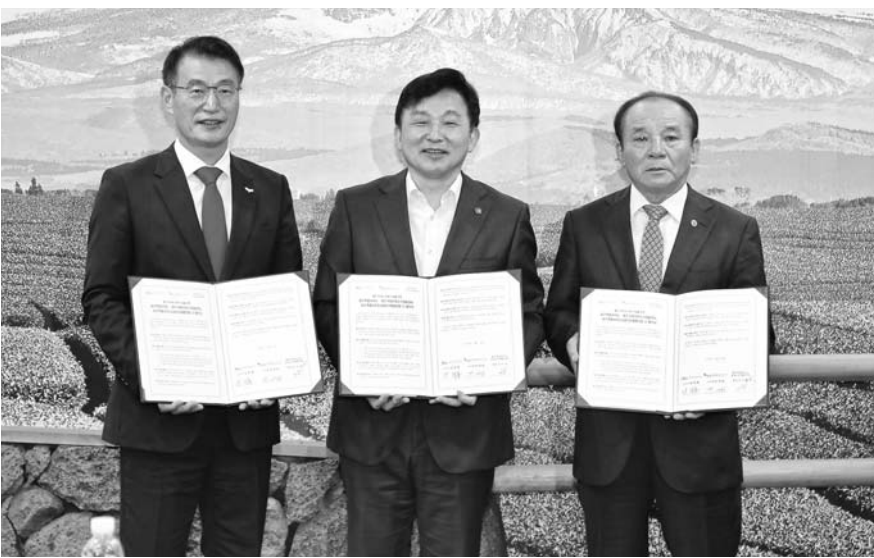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 단체는 제주산 농산물의 수급불안 문제 해소와 생산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제주도민의 먹거리 요구 충족을 위해 제주 농산물의 도내 우선 소비를 통한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제주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세 단체는 실무TF 및 기획단 구성, ‘제주 먹거리 선순환

체계 및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제주농업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등을 공동 추진한다. 이 밖에 제주 미래 농업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또 상호 원활한 업무 수행과 협약의 실행을 위해 도, JDC 농단협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사업 추진 및 일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와 JDC,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손을 잡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제주의 먹거리산업이 대한민국과 글로벌, 후손들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수출할 수 없지만 먹거리는 수출할 수 있다”면서 제주도의 농산물 유통 및 생산체계 개선을 통한 제주 먹거리산업의 글로벌화 등 먹거리산



2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원희룡(가운데) 도지사와 문대림(왼쪽) JDC 이사장, 강수길 제주도농단협 회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JDC도 제주 미래농업을 연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며 JDC의 핵심 프로젝트의 한 축으로써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수길 농단협 회장은 “제주농업 환경을 바꾸는 것만이 아닌 제주환경을 지키고 제주도를 지속가능한 농업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데 제주도 및 JDC와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형 4차 산업혁명 이끌 발판 놓나

도, SW서비스 사업화 지원
2021년까지 3개 과제 추진
재생배터리 수요 충족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JTP)는 제주형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는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은 제주지역 SW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강소SW기업 및 초기 스타트업 기업의 SW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선정된 과제는 베트남 기업 사용자용 SmartBill 플랫폼 개발((주)넥스트이지 강주경 대표, (주)CS 최민호 대표), EV페배터리 잔존가치 측정 지능형 알고리즘 및 진단 SW개발((주)퀀텀솔루션 장대

욱 대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약자 동반 여행일정관리 플랫폼 개발((주)휴플 김홍래 대표) 등 3개 과제다. 선정된 기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각각 11억2200만원, 민간 자부담 6억7200만원 등 총 29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약 2년간 SW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과제가 사업화로 이어질 경우 베트남 기업에 유용한 전자세금계산

서, 스마트전자계약, 예측추이분석 등의 SW서비스 제공으로 베트남 4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국내외 전기차 재생배터리 수요 충족, 배터리 재생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 제주의 관광단지 이용 고객들에게 유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로운 SW서비스 발굴과 시장개척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해 지역 SW산업을 발전시키고, 제주형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확진자 발생 다중이용시설 방문자 증상 없어도 코로나 검사 받으세요”

도, 도민 진단 검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내 감염병 유입 사전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도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행사 참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지원한다고 26일 밝

혔다.

이에 따라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경북 등 지역에 소재한 노래방·주점 등 확진자가 발생한 총 30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또는 방문한 도민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 방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사용

내역 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원희룡 지사는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또는 이용한 도민의 경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 관찰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사전 신고하고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일부터 이태원, 논현동 등 수도권 확진자 방문업소를 찾은 제주 도민의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이태원 등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방문 이력으로 검사를 받은 제주도민은 총 230명이다. 도내 14번 확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29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한편 도는 52개 합동점검반(도 7, 제주시 32, 서귀포시 13)을 꾸려 도내 총 1397개소(유형주점 777, 단란주점 611, 콜라텍 7, 클럽 2)의 유형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오른지기자

“재난지원금, 국민에게 위로돼 기뻐”

文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서 학교 밖 방역 철저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큰 위로가 돼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돼 카드 매출이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봤고,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며 “힘겨운 사람들과 마음을 따뜻하게 담겨주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부 참여도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고용보험 기금으로 환입돼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꼭 쓰일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아주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3에 이어 이번주에 순차적인 개학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학교 당국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방역의 성공을 가늠하는 것”이라며 “학교 밖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사태를 맞아 4개월간 급여 30%에 해당하는 2388만1000원을 받

냈다고 밝혔다. 청와대·부미현기자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한남리 분향당’.

사진=제주도 제공

한남리 분향당, 향토유형유산으로

제주도, 제30호로 지정 공고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소재 ‘한남리 분향당’이 향토유형유산 제30호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22일 열린 제5차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한남리마을회가 신청한 ‘한남리 분향당’에 대한 향토유형유산 지정 신청건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지정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남리 분향당’은 한남리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거쳐 분향당의 향토유형유산 지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마을을 중심으로 보존하려는 의지가 크고, 매년 당굿이 열리고 있는 점, 분향당의 넓이와 주변 정비 상태 등 그 형태가 매우 우수한 점에서 향토유산적 보존 가치

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도는 ‘한남리 분향당’이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남리마을회와 함께 향토유산 보존을 위한 주변정비,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 한남리 마을의 민간신앙이 고스란히 전승된 분향당의 보존 및 가치 홍보에도 나선다.

‘한남리 분향당’은 약 450년 전 설촌 당시부터 무속신앙에 의해 설치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1820년쯤부터 현재 자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음력 2월 12일에는 가족의 무사안녕과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굿이 열리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제주도 향토유산은 애월진성, 운주당지구 등 유형유산 29건, 시조장, 회심곡 등 무형유산 6건 총 35건이다.

오른지기자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배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시·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현장실무 전기공사 기능인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대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실업자 / 구직자
- 일정 소득이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대기업종사자, 공무원, 사회연금 대상자, 학생 등 제외

교육기간
7월초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축) 취업 | 2019년 7월 종료과정 전원취업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on.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 (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